현불 논단

바른 소통은 '역지사지'서부터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30년 전 만들어진 '인터넷'
소통 패러다임 혁신 가져와
편안함 · 분열 원인 함께 제공

커뮤니케이션, 사회 유지 요건
개인별 소통 능력 배양 필요

원효 스님 저서 〈십문화쟁론〉서
커뮤니케이션 통한 소통 강조
현대 사회도 이를 귀감 삼아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인 1989년 스위스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CERN)에 근무하던 물리학자 팀 버너스 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연구자들끼리 여러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인터넷(월드와이드웹)' 을 세상에 출현시켰다.

이제 인터넷은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발전하여 인간세계를 촘촘히 연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보수용 방식과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꿔놓았다. 발전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 구석구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 공동체에 균열과 분산의 양상이 초래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

신문과 텔레비전이 정보의 흐름을 대중적 방식으로 주도했었다면, 인터넷은 이를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대중미디어 시대에는 TV리모콘 조작만으로 주위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었던 반면, 인터넷 기반의 개인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닐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변화된 정보수용 방식으로 인해 세대 · 성별 · 직업 등 계층 간의 정보 격차가 커지는가 하면, 사회공동체가 공유하는 거대담론이 해체되고 있다. 또 사건의 맥락이 상실되면서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다가올 초연결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지금 인간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과 상생 체계를 견인할 방안 모색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집단의 구조와 속성을 토대로 인간의 태도변화를 연구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테오도어 뉴콤(Newcomb)은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체계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분산적 정보수용 시대에 인간 공동체의 균형과 상생을 보존할 하나의 방안이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학술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인지적 요소인 지식과 행동적 요소인 실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행동 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인들은 커뮤니케이션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다. 이는 타인의 의도 평가 및 상황 추정과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선택을 통해 자신을 상황에 빨리 적응시키는 능력인 행동적 융통성이다. 행동적 융통성은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 얘기하고, 상대가 수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메시지를 시의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학자들은 이 같은 인간의 포괄적 능력으로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사회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요소로서 강조해왔다.

〈십문화쟁론〉에서 원효 스님은 서로 껴안고 받아들여 화합하면, 타자 간에 화해가 일어나고 소통을 통한 만남, 소통을 통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통합과 상생을 이룰 수 있는가를 설했던 것이다. 원효 스님은 정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파편화된 정보 수용 방식이 초래하는 인간 공동체의 균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이미 1000년 전에 설파하였다.



마음산책

생명을 살린 보시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6월이 되면 할아버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보시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죠." 이 거사의 조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 거사의 조부는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었다. 군인들이 저녁에 갑자기 들이닥쳐 그를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이 씨는 밤새 유치장 안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도 이제 죽었구나. 내일이면 전쟁터로 끌려가든지, 재산을 빼앗기겠구나. 큰일이다"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완장을 찬 청년 하나가 철창에 나타났다. 그는 "이ㅇㅇ!"하고 이 씨의 이름을 불렀다. "이ㅇㅇ씨는 나오시오"라고 했다. 사람들을 따라 사무실에 들어가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년은 낮은 목소리로 "ㅇㅇ회사의 회장님이시죠"하고 확인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청년은 이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회장님이시군요! 이렇게 뵙게 되다니"라며 청년은 눈물이 글썽였다. 청년은 가난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고, 대학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입학금을 낼 돈이 없었다. 백방으로 알아봐도 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전무했다.

속을 태우다가 청년은 우연히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무조건 이 씨를 만나기 위해 회사로 찾아갔다.

청년은 회장인 이 씨를 만나자 마자 이렇게 호소했다. "저는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합격하고도, 돈이 없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 좀 살려 주세요!"

청년은 입학금을 마련 못해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그냥 삶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청년의 호소를 들은 이 회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입학금을 내주었다. 그리고 비서에게 청년이 대학을 다닐 동안 등록금을 도와주라고 지시했고, 청년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청년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이 씨에게 이 같이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장님께서는 어려운 학생들 부탁이라면 무조건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회장님 같은 분은 꼭 사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몰래 문을 열어드릴 테니 어서 빠져 나가십시오."

청년의 도움으로 이 씨는 밤새 서울을 빠져나왔고 살아남았다. 이에 대해 손자 이 거사는 조부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조부님은 위기를 겪고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나를 살렸다. 나는 덤으로 살고있다' 며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조부님은 평생 많이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안은 불자 가문이 됐습니다."

조부의 뜻을 이어, 이 거사의 아버지도 이 거사도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꾸준히 도와주고 있다. 돈이 많다고 저절로 남을 돕는 것은 아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바라는 바 없이, 조건없이 남을 도와준 마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자손들에게 지침이 되었다. 금수저보다 귀한, 대승보살의 마음이다. 이렇게 아무 상이 없이, 보시바라밀을 소리없이 행하시는 관세음보살의 화신들 덕분에 불법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社 說

새로운 청소년 포교 전략 시급

학교 내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으며,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른바 탈학교화에 대한 대안이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에서 지도교사의 가산점 폐지와 교사 업무 부담 금지, 학생기록부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단체, 특히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의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같은 불교계 청소년단체는 10년 넘게 학교를 기반에 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간접포교는 청소년 불자 양성의 큰 힘이었다.

탈학교화 정책에 대비해 불교계는 청소년 쉼터나 대안학교 등을 통해 새로운 간접포교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서울에만 40여 곳이 지정된 단기 위탁형 대안학교 중 유일했던 나란타대안학교가 폐지 되는 등 불교계의 대응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찰 유휴부지와 퇴직 불자교원 등을 활용한 방안이 필요하다. 인허가가 필요한 대안학교 외에도 지자체와 연계한 청소년 쉼터 등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간접 포교가 전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불교계가 꾸준히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반한 인성교육, 봉사활동, 마음치유 등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간접 포교가 가능하다. 한국불교는 위기다. 이 위기는 청소년 불자들의 감소에 있다. 이들의 고충을 어루만지는 대안학교, 쉼터 개설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보다 역주해야 할 것이다.

'녹색불교', 한국불교 새로운 화두

바야흐로 '필(必)환경시대' 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19〉는 올해의 소비문화트렌드로 '필환경' 을 꼽았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필환경적 소비는 '현상' 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 과 '비거니즘' 이다. '제로 웨이스트' 는 말 그대로 생활 쓰레기 배출을 최소하며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다 '비거니즘' 은 완벽한 채식이라는 '비건' 을 넘어서 자연과 동물보호, 재활용 등 전반적 생활 습관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세계적 현상인 '필환경' 을 필두로 한 '제로 웨이스트' 와 '비거니즘' 은 바로 불교와 맞닿는다. 불교는 과도한 소유를 경계하며 순환적 삶을 강조한다. 승가의 분소의나 발우공양의 전통은 이를 잘 보여주는 문화다.

불교환경연대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녹색사찰 발굴 및 협약 △환경법회 및 교육 △버드나무 방생법회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다이어트 △사찰 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세부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슈 파이팅' 에 주목했던 환경 감시자 역할을 넘어서 대안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때 '불교는 곧 환경운동' 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다. 당시 사회적 여파는 분명했지만, 이것이 운동의 대중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불교환경연대의 '녹색불교 만들기' 는 '종단 · 사찰 · 불자의 녹색화' 라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된다. 녹색불교는 이제 한국불교의 새로운 화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탈 종 공 고

명덕사	주지	해륜	대덕사	주지	혜법	흥원사	주지	청봉	영월암	주지	상운	관음정사	주지	탄석
벽조사	주지	고우	홍법사	주지	지명	만덕사	주지	운성	연화사	주지	덕운	용화정사	주지	공정
묘련사	주지	법문	세심사	주지	광혜	법정사	주지	법연	정족사	주지	진허	덕행암	주지	자원
보성사	주지	지성	용주암	주지	혜산	조동종	법명	도명	정각사	교임	관음행			
안양암	주지	법경	담연정사	주지	담연	정암사	주지	선담	성관사	법명	정묵			

위 사찰주지 및 법사 교임은 승가본연의 종단운영 및 사찰행정경영에
본뜻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법하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번길 103